

# 여자축구 벨 감독 “일본, 중국과의 거리가 좁혀졌다”

동아시안컵 2경기에서 1무1패...17년 만의 우승 좌절  
중국 감독 “어려운 경기...한국의 공격력 매우 강했다”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중국과의 2차전에서 아쉽게 비긴 벨 감독이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이 아시아 강국들과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말했다. 한국은 23일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대회 2차전에서 전반 34분 최유리(현대제철)의 선제골로 1-0 앞섰지만, 후반 31분 왕린린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19일 개최국 일본과 1차전에서 1-2로 졌던 한국은 1무1패가 됐다. 한국은 중국과 역대전적에서도 4승8무2패의 열세를 이어갔다. 2015년 동아시안컵 1-0 승리 이후 9번 만나 3무6패로 이기지 못했다. 일본이 2승으로 우승 경쟁에서 앞선 가운데 2005년 원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한국의 도전은 좌절됐다. 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챔

피언을 상대로 지난번보다 좋은 플레이를 했다. 집중력이 다소 떨어져 동점을 내줬지만, 경기력은 만족스럽다. 중국, 일본전을 봤을 때 이들과의 거리가 좁혀졌다고 생각한다. 양 팀을 상대로 훌륭한 플레이를 펼친 점은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올해 2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결승에서도 중국에 2-3으로 졌었다. 그러나 5개월 만의 리턴매치에서 훨씬 발전된 경기력을 보였다. 그는 “지난 아시안컵에선 피지컬한 부분을 뒤집을 수 없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개선했다. 더 필요한 건 두 번째 골이었다. 당시 경기에서 마지막 15분은 개선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벨 감독은 일본, 중국과 대결에서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많은 걸 얻었다고 했다. 그는 “일본, 중국전을 통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찾았다. 축구는 결과가 중요하다. 2연승이 가능했지만, 승점 1점만 얻었다. 공격과 수비를 개선해야 한다. 피지컬을 올리고, 파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도 75분 이후 집중력이 떨어졌다. 경기력은 만족하지만, 결과는 아쉽다”고 했다. 대표팀의 에이스인 지소연(수원FC)에 대해선 “월드클래스다. 잉글랜드에서 8-9년을 뛰었고, 팀에 기여도 하는 선수다. 팀을 위해 수비도 하고 공을 잡으면 결과도 낸다. 우리는 지소연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 감독은 마지막으로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해 “후반에 좋은 상황에서 기세를 살리지 못했다. 패스 정확도가 부족했다. 크로스를 올린 후 에너지와 집중력이 아쉬웠다. 수비도 마찬가지로. 두 경기 모두 우리의 실수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자 대표팀은 오는 2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 대만(2패)과 최종전을 치른다. 한편 중국의 수석감독은 “어려운 경기였다. 한국의 공격력은 매우 강했다. 전반에 상대의 전술이 훌륭해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



23일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EAFF E-1 챔피언십 2차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1:1로 경기를 마친 후 선수들이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다”고 말했다. **아주 귀한 경험을 했다. 다양한 플레이를 통해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목포과학대, 2022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여자부 우승

여대부 5개 팀 출전... 4전 3승 1패로 우승·각종 개인상 휩쓸어



목포과학대학교 배구부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무안(무안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무안대회”에서 여대부 우승을 차지했다. 목포과학대는 한국대학배구연맹이 주최하고 무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서 목포과

학대를 포함 여자대학교 5개팀이 출전, 총 4팀과 겨뤘다. 4전 3승 1패를 기록하며 여대부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목포과학대는 18일 단국대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1세트25:23 2세트25:23 3세트25:22)으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1승을 거

렸고, 19일 우석대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1세트23:25 2세트25:21 3세트17:25 4세트25:19 5세트15:8) 5세트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보이며 2승을 챙겼다. 20일, 경일대와의 경기에서는 세트스코어 2:3으로(1세트11:25 2세트25:20 3세트25:19 4세트15:25 5세트14:16) 전날과 동일하게 5세트 접전까지 갔으나 5세트에서 아쉽게 패, 1패를 기록했다. 21일 호남대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1세트25:21 2세트25:18 3세트25:7)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최종 3승 1패로 대회 정상에 우뚝 올라섰다. 또한, 서정식 목포과학대 감독이 최우수 지도자 상을 받았고, 이은선(2학년)이 최우수 선수상, 신현주(2학년)가 리베로상, 박민정(2학년) 세터상, 엄세희(1학년) 블로킹상, 이주희(1학년)이 신인상을 차지하며, 개인상도 휩쓸었다. 이재운 스포츠단장은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대해 매우 기쁘다”며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호균 총장님을 비롯 최선을 다해준 서정식 감독과 배구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 10월에 열린 전국체육대회도 좋은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여자일반부 단체전 준우승

화순군청 배드민턴부가 ‘2022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준우승했다. 화순군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가 전국종별 배드민턴대회에서 단체전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는 결승전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패했다. 4강에서는 전북은행을 만나 3:0으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14일부터 전남 해남에서 시작한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배드민턴대회는 21일까지 열린다. 화순군 관계자는 “경기에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배드민턴부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구례군청 여자씨름단, 하계 전지훈련 구슬땀 하반기 상위입상 목표...기술력 향상 도모

구례군청 여자씨름단이 하반기 대회를 휩쓸기 위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구례군청 여자씨름단이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일간 대구 및 문경시에서 하반기 대회 준비를 위한 하계 전지훈련에 돌입한다. 1월 초 통영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전지훈련으로,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선수들 경기력 향상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에 머물며, 오전에는 팔공산 산악구보를 실시했고 오후에는 농민고등학교 씨름부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 동안은, 문경에 머물며 점촌중학교 및 문경고등학교 씨름부와 연습경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구례군 여자씨름의 위상을 드높여주기 바란다”며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구례전국여자전차장사 및 대학장사 씨름대회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구례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 세한대, 2022 하계 대학유도연맹전 단체전 준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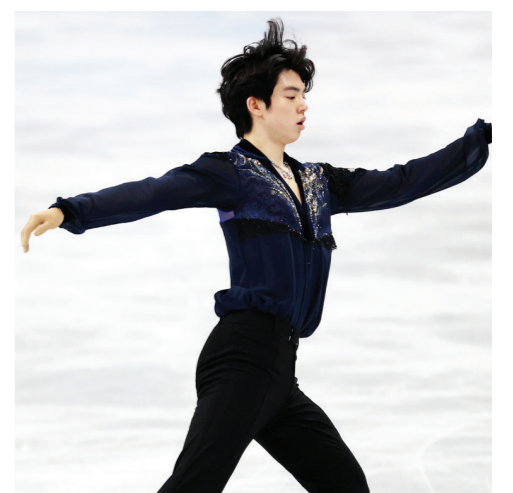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유도부가 2022 하계 전국 남·여 대학 유도연맹전 남·여 대학부 체급별 7인조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에서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세한대학교는 지난 7월 20일~22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2022하계 전국 남·여 대학 유도연맹전 남·여 대학부 첫째날 경량급 개인전에 심재민(4학년)이 -66kg 2위, 둘째날 중량급 개인전에 김민성(1학년)이 +100kg 2위, 셋째날 체급별 7인조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2022년 전반기 시합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심재민은 1회전부터 역전의 승부사로 불리

며 결승까지 올라갔으나 결승전에서 이도협(용인대)에게 연장전 끝에 업어치기 되치기로 절반을 내주며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김민성은 시합 일주일전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온전한 몸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하여 1회전부터 지도승을 이끌며 결승전에 올랐으나 결승에서 송진희(용인대)에게 지도패하며 2위에 그쳤다. 단체전 예선에서는 국민대와 국제대를 누르고 4강에 진출, 4강에서하여 경운대를 4: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으나 결승전에서 동의대학교에 4:0으로 패하여 준우승으로 시합을 마무리 지었다. **이슬비기자**

## 피겨 차준환, 새 시즌 두 차례 그랑프리 대회 참가

여자 싱글은 유영 등 8명 참가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새 시즌 두 차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대회에 나선다. ISU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2023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 명단에서 차준환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우드에서 열리는 1차 대회 스케이트 아메리카(10월21-23일)와 일본 삿포로에서 치러지는 5차 대회 NHK트로피(11월18-20일)에 출전한다. 남자 싱글 슈퍼스타인 하루 유즈무(일본)가 최근 프로로 전향한 가운데 차준환은 진보양(중국), 가키야마 유마, 우노 쇼마(이상 일본) 등과 메달을 다툰 전망이다. 차준환은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싱글로는 역대 최고인 5위에 올랐다. 2010년 밴쿠버 금메달, 2014년 소치 은메달을 딴 피겨여왕 김연아(은퇴) 이후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5위 안에 든 건 차준환이 처음이었다. 차준환은 지난 3월 부츠 문제로 피겨세계선수권대회에 기권한 바 있다. 남자 싱글 이시형(고려대)은 프랑스 앙제에서 열리는 3차 대회(11월4-6일)에 나선다. 여자 싱글에는 유영을 비롯해 지서연, 위서영(이상 수리고), 김예림(단국대), 이해인(세화여고), 박연정(노원고), 윤아선(광동중), 임은수(고려대)까지 총 8명이 참가한다. 베이징 올림픽 6위에 오른 유영은 캐나다 미



시소거에서 개최되는 2차 대회 스케이트 캐나다 인터내셔널(10월28-30일)과 영국 셰필드에서 열리는 4차 대회 MK 존 윌슨 트로피(11월11-13일)에 출전한다. 베이징 올림픽 9위에 오른 김예림은 3차, 5차 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 이해인은 1차와 3차 대회에 나섰고, 박연정과 윤아선은 1차 대회에, 임은수는 2차, 지서연, 위서영은 5차 대회에 참가한다. 그랑프리 대회마다 순위에 따른 랭킹 포인트가 주어지며, 대회 성적을 통틀어 6위 안에 들면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 자격을 얻는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는다. **뉴시스**